



미 증시, FOMC, 빅테크 실적 앞둔 경계심리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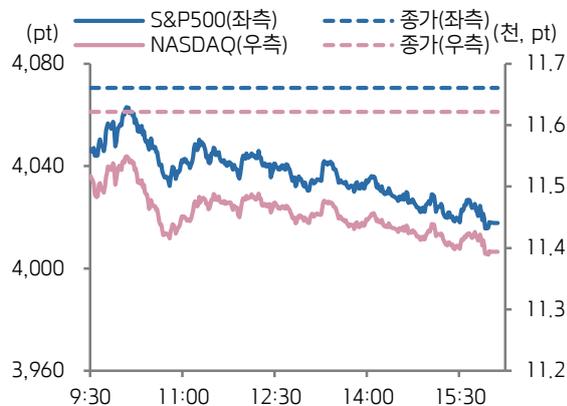
30 일(월) 미국 증시는 FOMC, 아마존, 애플, 알파벳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 독일 4분기 GDP 역성장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여파로 하락(다우 -0.77%, S&P500 -1.3%, 나스닥 -1.96%)

독일 4분기 GDP 가 전년동기대비 0.5%(예상 0.8%, 3분기 1.2%), 전분기 대비로는 -0.2%(예상 0.0%, 3분기 0.5%) 역성장 기록하며 경기 침체 국면 진입. 독일 연방 통계청은 고물가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언급했으며, 일각에서는 1 분기에도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편 스페인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8%(예상 5.0%, 전월 5.7%)로 작년 7월 이후 재차 상승한 점역시 그동안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온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 가중. 미국 1월 달러스런은 제조업활동지수는 -8.4(예상 -15.0, 전월 -20.0)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업종별로 필수소비재(+0.1% 업종만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유틸리티(-0.5%), 금융(-0.5%)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고, 에너지(-2.3%), IT(-1.9%), 통신(-1.8%)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알파벳(-2.45%), 아마존(-1.65%), 메타(-3.08%) 등 주요 빅테크 약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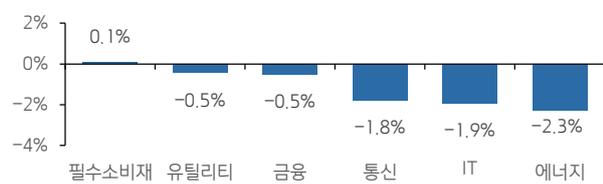
현지시간 2일 실적발표를 앞둔 애플(-2.01%)은 작년 11월 초 코로나 19 봉쇄조치로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며 생산량이 감소한 여파로 201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YOY 매출감소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에 약세. 포드(-2.9%)가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응하여 전기차 모델 가격을 인하한다는 보도에 업계 가격경쟁 심화 및 이익률 하락 우려 부각되며 관련주 약세. 특히지난주 사우디 국부펀드의 인수 보도에 급등했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8.7%) 역시 약세 전환.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50.47	-1.35%	USD/KRW	1,227.40	-0.32%
코스피 200	322.67	-1.62%	달러 지수	102.23	+0.3%
코스닥	738.62	-0.35%	EUR/USD	1.09	-0.15%
코스닥 150	1,020.13	-0.85%	USD/CNH	6.76	+0%
S&P500	4,017.77	-1.3%	USD/JPY	130.44	+0.43%
NASDAQ	11,393.81	-1.96%	채권시장		
다우	33,717.09	-0.77%	국고채 3년	3.265	-4.5bp
VIX	19.94	+7.73%	국고채 10년	3.235	-5.2bp
러셀 2000	1,885.72	-1.35%	미국 국채 2년	4.230	+3.1bp
필라. 반도체	2,866.69	-2.67%	미국 국채 10년	3.537	+3.3bp
다우 운송	14,157.09	-2.25%	미국 국채 30년	3.650	+3.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58.63	-0.46%	WTI	77.75	-2.42%
MSCI 전세계 지수	649.94	+0.25%	브렌트유	84.87	-2.07%
MSCI DM 지수	2,785.84	+0.3%	금	1938.5	-0.36%
MSCI EM 지수	1,051.19	-0.12%	은	23.68	+0.25%
MSCI 한국 ETF	63.97	-2.2%	구리	418.3	-0.9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0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0.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목요일 새벽 예정된 2월 FOMC 경계심리의 조기 유입 가능성 2. 테슬라, 애플 등 미국 성장주 급락이 국내 성장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 3.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의 감산 발표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한달 동안 랠리를 전개했던 주식시장은 금주 대형 일정(실적, 지표)들을 앞두고 경계모드에 돌입했으며, 전일 미국 성장주 급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선제적인 포지션 축소에 나서고 있는 모습. 또 이번에는 다른 달과는 달리, FOMC, ECB 등 통화정책회의 이벤트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평소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1월 증시 랠리의 핵심 엔진이었던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이었기에, 그 기대감이 어느정도 구체화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FOMC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 매크로 상 우호적인 환경 조성(인플레이션 둔화, 연준 정책 기대 등)으로 민감도가 감소하긴 했지만, 금주에는 개별 주가를 넘어서 전반적인 증시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빅테크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따라서, 금주 중 대형 이벤트들을 치르는 과정에서 1월 주가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종목(성장주, 경기 민감, Meme)의 단기적인 주가 되돌림 현상 출현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강세에도, 금주 FOMC 등 대형이벤트 경계감 속 기관을 중심으로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1.4%, 코스닥 -0.4%). 금일에도 FOMC 경계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플(-2.0%), 테슬라(-6.3%) 등 미국 테크 및 성장주 급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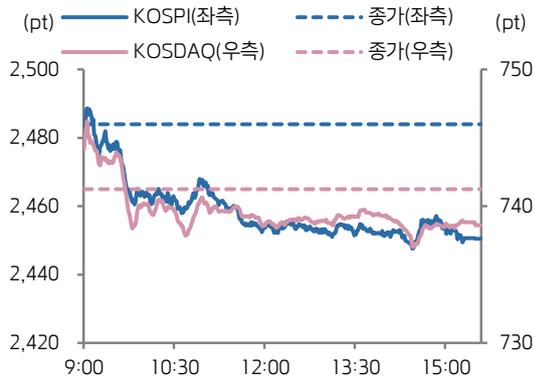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 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 월초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이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반도체주들이 주가가 좋았던 것은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으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감에서 기인 했었기 때문.

이를 감안 시 금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콜에서 감산 실체화 여부에 따라, 약세 압력이 우위에 있을 국내 증시의 하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반도체주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코스피에서 공격적인 순매수(연초 이후 약 7조원)를 기록했던 외국인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지난 한주동안(1월 19일~25일)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플로우를 체크해보면, 선진국(+61억달러)에 비해 아시아 중심의 신흥국(+79억달러)의 자금유입 강도가 더 셉으며, 아시아 내에서는 한국(14억달러), 중국(28억달러)의 유입 강도가 좋았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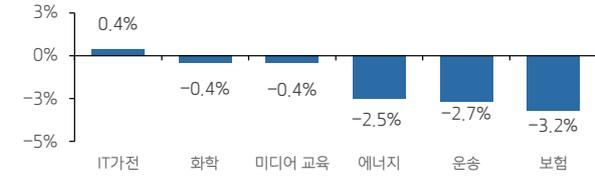
결국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패시브 수급은 자처하더라도 액티브 수급은 국내 대형 반도체주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금일 삼성전자의 실적 이벤트에 많은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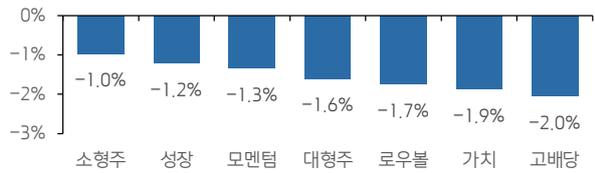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